

# “이태원 국정조사 미룰 수 없어”...오늘 착수

### 野, 국민의힘 없이 이태원 참사 국조 ‘개문발차’ 우상호 “19일 증인 채택·본조사 일정 협의” 주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은 18일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

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하루 빨리 정상 가동해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벌써 50일이 흘렀다”며 “국조특위는 11월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조특위가 출범한 지)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며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대감이 깊어질수록 참사

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다.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반드시 참사의 책임자들을 진실규명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저는 협의를 끝냈다”며 “개문발차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 제 입장을 존중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안 들어올 것을 전제로 계획을 발표하기는 좀 그렇다”면서 “내일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 현장 조사는 야 3당만 하고 기관 업무보고와 청문회는 여야가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지체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천히 가면서 중간에 (여당이) 탈 수도 또 배려하는 것도 지체. 지금은 더 늦추면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끝까지 (여당이) 안 들어오면 기존에 여야 간 정상

적으로 고려했던 (국조특위 관련) 협상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여당의 참여를 압박했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본조사를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차원의 결정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되면 여당 지도부나 국조특위 위원들도 어떻게 안 들어오겠나 정도의 전언을 들었다”며 “개문발차 정도는 같이 해주면 제일 좋고, 같이 안 해준다면 (19일 회의에 대한) 양해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며 여당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내일 오전에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내일 오전 중 야 3당이 먼저 모여 향후 대략을 논의해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 소집 및 안전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 민주 “尹국정과정 제점검회의 리허설·본방송 일치 ‘쇼통’”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재한 국정과정 제점검회의를 놓고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편의 연극에 국민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쇼통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은 없는 천박한 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정 제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며 “리허설과 본 방송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보며 속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쇼통’, ‘천박한 쇼’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에 묻는다. 지금 ‘천박한 쇼’는 누가 하고 있나”라며 “이태원 참사를 의면하며 자화자찬하는 대통령,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내각, 대통령의 관심사만 늘어놓는 참모들,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천박한 쇼’를 멈추고 제대로 소통하라”며 “대통령실의 웅졸한 고집에 막힌 예산안도 풀어달라. 2023년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제설 작업 나온 공무원들 광주 지역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18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인도에서 계12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 與 당원투표 100% 갈등 비윤 “국민 목소리 귀담아”

자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결정을 개정해 두고 국민의 힘 당내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당 지도부와 전운계는 당시 확대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반면 인철수·윤상현 등 다른 당권주자와 비운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페이스북 글에 “당원 포비아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대표가 될 수도 없고, 패셔도 안 된다”는 답글을 남기며 당원 투표 비율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 이사장은 앞서 전남 페이스북에 당원 투표 비율 확대를 반대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을 겨냥하며 “당원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은 부끄럽고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비운계는 투표 확대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유 전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권 의원을 향한 역공이 계속됐다. 김웅 의원은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는 정당법 위반”이라며 “어느 경우나 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北,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500km 비행...고체엔진 가능성

### 고각 발사 약 500km가까이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지 한달 만에 다시 한 번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도발에 나섰다.

특히 이번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의 경우 고체 엔진을 싣혀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군 당국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11시 13분경부터 오후 12시 05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MRBM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km가까이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지난 6일 방사포 도발에 이어 12일 만이다.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화성-17형 발사 이후 약 한달 만이다.

지난 6일 북한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북측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의 방사포를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했다. 또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북측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뉴스

일본 방위성이 이날 분석한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550km다. 해당 미사일은 약 500km를 비행한 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합참은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 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 ‘변화 폭 얼마나?’ 총경 승진인사 지연, 광주·전남경찰 뒤늦게

### 이태원 참사 후폭풍, 고위직 인사 보름이상 늦어져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는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 인사를 앞두고 광주·전남경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복수직급제 확대, 일반직(순경) 출신 고위직 비율 확대 등 변수가 많아지면서 인사 결과를 놓고 승진대상자는 물론이고, 조직이 들쭉인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통상 매년 12월 중순경 경무관(일반 공무원 3급 상당)과 총경(4급 상당)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

하지만 올해는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무관 인사는 12월 23일, 총경 직급은 12월 30일 승진 예정자가 발표했다.

해마다 앞서 발표했던 치안감감·치안감 등 고위직 인사가 보름 이상 늦어지면서 일선 지휘관인 경무관·총경 인사 역시 올해는 안갯속이다.

경찰 내 서열 4위인 경무관은 다면 평가 등이 진행 중이지만, 총경은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승진대상자 명단

제출 이후 진척이 더디다.

경찰 고위직 인사 지연의 배경에는 이태원 참사 후폭풍이 자리한다. 치안감감 직급 보직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관련 수사선상에 놓였고, 국회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도 경찰청·서울경찰청이 나란히 올랐다.

경찰 인사 제청권을 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 등 여수선한 정국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경무관·총경은 지방경찰청 내 주요 지휘관을 맡는 직급인 만큼, 광주·전남경찰청 인파도 인사를 둘러싼 말이 무성하다. 특히 뜨거운 감자는 ‘복수직급제’ 확대 여부다.

## 전남 기부채 담례품 선정에 머리 싸맨다

### ‘벌초 대행·천하장사 식사권’...지자체들 담례품 차별화 고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차별화된 담례품 제공을 위한 묘안 찾기에 머리를 싸맨 채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조래는 지방행정연 구원이 기부채 도입을 앞두고 지난 2019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잠재적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희망지 선호 조사를 한 결과 전남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요인이 크다.

여기에 잠재적 기부자들이 각종 설문에서 ‘농축수산물 담례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품목이 다양한 전남의 경우 타 지역보다 담례품 개발에 적극적인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 대부분이 담례품 선정에 마치고 공급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담례품은 대부분 각 지역을 대표

하는 특산물과 특산품에서부터 관광입장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까지 다양하다.

지자체 중에는 이색적인 체험거리 제공을 통한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담례품’ 제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 보인다.

영암군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지방도를 활용한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렌’을 내놓아 일단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원도군은 향우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고향 선산의 ‘소장소 벌초대행 서비스’를 담례품에 포함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나주시는 최근 전남도 지정문화재 132호인 목사내아(牧使內衙) 숙박체험권을 담례품에 추가했다. /박중배 기자

## “전남전국체전 성공...작은 것부터 실천”

### 전남체육회 송진호 당선인

“15년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챙기겠습니다” 전남체육회를 이끌 수장에 선출된 송진호 당선인은 18일 “104회 전남 전국체전을 통해 전남이 다시 한번 체육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송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전남체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 체육인의 자존심이 반영됐다”며 “화합하고 통합해 체육을 발전시키려는 체육인들의 뜻이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0월 목표를 중심으로 전남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이 지역의 체육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며 “전남을 방문하는 전국의 체육인들이 작은 것부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04회 전국체전은 2023년 10월 13~19일 7일동안 목포지역을 중심

으로 전남 일대에서 펼쳐진다. 제43회 장애인체전도 같은해 11월 3~8일 열린다.

송 당선인은 “우선 전남에 대한 첫 인상이 될 수 있는 숙박시설, 식당 등이 전국체전 대목을 노리고 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표준요금제를 마련하도록 전남도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며 “상인협의회 등과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를 비롯해 세계적인 선수들이 전남을 찾아 동계훈련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체육회관이 무안에 있어 동부권지역은 이동이 쉽지 않았다”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종목별 사무실 지원을 통해 체육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신임 사장 임명

### 3년 임기 시작...다양한 사회적 시각 현안 해결 기대

광주도시철도공사 제8대 사장에 조익문 전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16일 정식 임명됐다.

조 신임 사장은 이날부터 3년간의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조 사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이끌 직임자로 낙점됐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지난 14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시철도공사에 복합적으로 산재해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시각과 문제해결 능력,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점에서 긍정 평가가 내려졌다. /김도기 기자

조 사장은 ▲한국도지공사(LH) 지역발전협력담당 ▲㈜세종커뮤니케이션 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조 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 해결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매민평**

이태원

슬픔의나라

추운 겨울도 슬프고 어두운 나라입니다

아크로비스타에 띄워주세요 슬픔도 잊어주세요 슬픔은 가져오세요

후리리릭

근조 이태원참사 528명 2022.12.16 49제 미안해

태한